



호주의 양돈

윤 주 성
(본회 이리익산지부장)

호주는 세계의 대륙중에서 제일 작은 대륙인 호주대륙과 한 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다. 라스 마니아섬을 국토로 하는 호주연방국의 면적은 7백68만2천3백K㎡이고, 인구는 1천6백48만7천명(1988년 추계)이며, 국토의 넓이는 남한의 77배나 된다. 인구밀도는 남한의 1km²당 4백25인에 비해 2.14인으로 광대한 국토자원을 가진 나라이다.

주산물로서는 양모, 식육, 밀, 낙농제품, 사탕 등을 생산하여 수출을 위주로 한 수출국이였으나, 1960년 후반부터 서오스트렐리아주에서 시작된 철강석의 개발을 주축으로 수출 구조가 농업과 목축업의 의존에서 광업과 농업, 목축업의 양축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국민 총생산의 산업별 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농업, 목축업과 광업은 모두 낮아 10% 이하이며 제조업은 20%, 서비스업은 70%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호주의 경제적인 내면은 공업이고, 외면은 농업국이라 할 수 있다.

1. 양돈 농가호수와 사양 규모

호주의 양돈농가호수를 보면, 1950년대에는 낙농의 부산물인 탈지유의 유효이용이라는 생각에서 낙농가에서 돼지를 사양하였으나, 1호당 사양규모는 적어 23두이었다. <표1>에서 보는 바와같이 그후 전업적인 양돈으로 변화하여 1987년에는 1호당 3백

14두로 되어있다.

돼지 사육호수는 해마다 감소 일로에 있으며 1980년에는 1만9천2백79호이었으나, 1987년에는 8천5백23호로 되어 7년동안 절반 이상이나 줄었다.

<표1> 호주의 돼지 사육호수 및 규모의 추이

(단위 : 천두, 호, 두/호)

년	사양두수	호 수	규모
1960	1,424	49,537	29
70	2,398	39,498	61
80	2,518	19,279	131
85	2,512	11,159	225
87	2,672	8,523	314

<표2>의 사양규모를 보면, 50두 이하가 44%를 점하고, 10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41%이며, 모든 100두의 일관경영에 해당되는 1,00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수는 4.8%에 불과하다.

2. 사양지역

호주의 주별 돼지 사육분포를 보면 <표3>, <그림1>과 같다.

사양호수와 두수 모두 뉴사우스웨일즈주가 제일 많아 2천6백15호(31%)에서 84만두(31%)를 사육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칭스랜드주가 1천8백22호(21%)에서 61만5천두(23%), 남오스트레리아주가 1천4백46호(17%)에서 44만3천두(16%)를 사육하는 순으로 되어 있다.

〈표2〉 호주의 규모별 돼지 사육두수 현황

1두	10~	20~	30~	40~	50~	70~	100~	150~	200~	300~	500~	700~	1,000두 이상	계
1,323호	871	631	472	418	682	638	647	465	668	680	342	273	413	8,523
15.5%	10.2	7.4	5.5	4.9	8.0	7.5	7.6	5.5	7.8	8.0	4.0	3.2	4.8	100%

〈표3〉 호주의 주별 양돈분포

구 분	뉴사우스웰즈	빅토리아	퀸즐랜드	남오스트레리아	서오스트레리아	다스마니아	북부준주	계
호 수 (지분)	2,615호 (30.7%)	1,231 (14.4)	1,822 (21.4)	1,446 (17.0)	1,174 (13.8)	220 (2.6)	13 (0.2)	8,523 (100%)
두 수 (지분)	840천두 (31.1%)	429 (15.9)	615 (22.8)	443 (16.4)	311 (11.5)	51 (1.9)	7 (0.3)	2,697 (100%)

주: 호수는 1987년 3월 현재, 두수는 1988년 3월 현재임.



〈그림1〉 호주의 주별 양돈분포

3. 사양두수

호주의 돼지 사육두수는 〈그림 2〉에 나타낸 바와같이 1963년에 1백45만두였던 것이 10년간 증가일로를 걸어 1973년엔 3백26

만두(이중 자돈생산용 암돼지 41만두)로 최고에 달하였다. 그 후 급격히 감소하여 1976년에는 바닥세로 되었다가 서서히 증가하여 1989년 3월에는 2백65만두(이중 자돈생산 모돈 33만두)까

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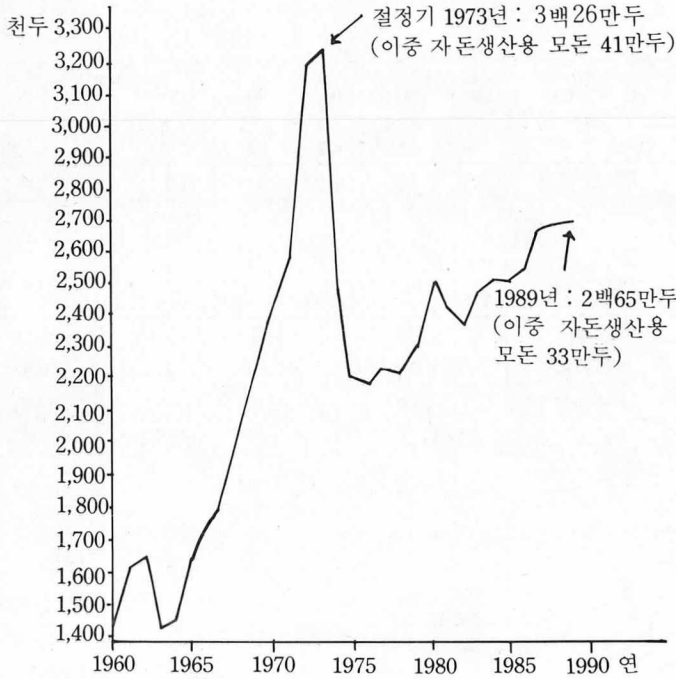
또, 호주의 1993년의 전망에서 사양두수는 3백32만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4. 돈육의 생산

호주의 돈육생산량은 1970년대 중반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그후 매년 착실하게 증가하여 1984/1985년에는 지육 기준으로 26만톤, 1988년에는 30만2천톤을 생산했다. 그리고 앞으로 소비가 착실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이며, 1993년에는 33만5천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5. 소비

1인당 소비량(지육 기준)은 〈표5〉에서 보는 바와같이 1980/81년도에 쇠고기가 47kg로 45



〈그림2〉 사양두수의 추이

〈표4〉 호주의 양돈 상황

구 분	1984/85	85/86	86/87	87/88	88/89	89/90
사 육 두 수	2.51백만두	2.55	2.67	2.76	2.65	2.7
도 축 두 수	4,490천두	4,550	4,736	4,923	4,950	4,980
돈 육 생산량 (지육 기준)	260천톤	271	283	297	302	304
수 출 량 (지육 기준)	4천톤	4	5	11	11	11
시 장 거래 가격	179센트/kg	177	184	192	216	230
소 매 가격	-	-	553	581	625	675

자료 : ABARE 「Agriculture and Resources Quarterly」

〈표5〉 1인당 소비량의 추이(지육 기준)

구 분	1980/81년도		86/87		87/88		88/89	
	수 량	지 분	수 량	지 분	수 량	지 분	수 량	지 분
우 육	47.0kg	45%	38.7kg	38%	39.9%	38%	38.5%	39%
양 고 기	15.8	15	15.1	15	14.9	14	14.3	14
돈 육	15.6	15	17.2	17	17.5	17	17.5	18
계 육	20.3	20	23.5	23	24.5	23	23.9	24
계	103.6	100	101.5	100	104.8	100	99.9	100

자료 : ABARE 「Agriculture and Resources Quarterly」

의 비율을 점하고 있던 것이 1988/89년도에는 38.5kg로 39%의 점유율로 되어 1980년도 대비 18%가 떨어졌다.

반면 돈육은 15.6kg로 15%의 점유율이 1988/89년도에는 17.5kg로 지분율이 18%로 1980년에 대비 12%의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닭고기도 돈육과 같은 경향으로 3~4%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돈육의 소비는 베이컨, 햄 등의 가공품의 소비가 6할을 점하고 있고, 생육용으로 소비량은 4할대이다.

〈표6〉 시장거래가격과 소매가격의 추이

(단위: 센트/kg)

구분	1986/87	87/88(속보)	88/89(예측)	89/90(예측)
시장거래가격				
소양	186	194	210	245
돼지	129	129	133	152
돼지	184	192	216	230
소매가격				
우유	578	611	668	745
양고기	450	475	505	544
돈육	550	581	625	675
닭고기	280	289	298	312

자료: ABARE 「Agriculture and Resources Quarterly」

주: 시장거래가격은 지육기준, 소매가격은 소매무게 기준

6. 수출

돈육수출은 우육이나 양육과는 달리 1987/88년의 생산량 29만7천톤에 대하여 1만1천톤(3.7%)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이 수출되었고, 거의가 국내에서 소비했다.

7. 가격

시장거래가격과 소매가격의 추이에 대하여는 〈표6〉에서와 같으며, 시장가격은 1980년 지육기준으로 호주돈으로 142센트 였던 것이 매년 상승하여 1988/89년도에는 216센트로 되었다. 또 소매가격은 우육, 돈육, 양고기, 닭고기 순으로 되어 있고 돈육의 소비가격은 1980년에 kg당 202센트였던 것이 1988/89년도에는 625센트로 뛰어 10년 사이에 가격이 약 3배 가량



상승하였다.

호주의 양돈은 탈지분유의 이용을 생각한 낙농의 부업적 견지에서 시작되어 1950년대에는 사양농가호수가 많았다. 또한 소 규모사육이었으나 이후 서서히 사양규모도 확대되고 전업화의

방향을 취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내용을 볼것 같으면 생산과 소비량 모두 증가의 경향이 있으나, 수출량으로서는 4%에 머무르고 거의가 국내소비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